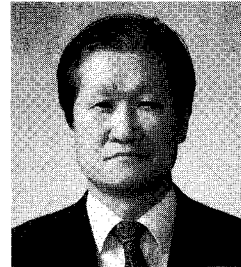


계란 집하장 활성화 방안



유 종 래
대구경북양계축협 조합장

1. 개황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연간 90억개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이는 연간 입식되어지는 산란종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생산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채란양계업의 생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한다고 보여진다.

이 중에서 각 양계축협을 중심으로 한 계란 유통은 2000년 현재 약 17%에 이르고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양계인들의 인식부족과 참여의식의 결여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점차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 되고 있다.

표1. 연도별 계란생산 잠재력(단위 : 천개)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	656,652	825,147	792,852	861,956
2	669,935	833,704	792,852	868,128
3	686,307	837,478	792,683	875,568
4	696,475	855,645	783,068	886,053
5	717,811	875,698	774,245	
6	727,285	896,024	777,885	
7	740,443	889,732	796,422	
8	759,375	863,110	806,126	
9	776,410	850,779	806,458	
10	792,172	856,285	828,402	
11	802,966	860,176	817,987	
12	814,329	854,398	797,627	
합계	8,840,160	10,298,176	9,566,607	

표2. 전국 양계축협 집하장 현황

집하장명	주 소		전 화	1일처리력
서울·경기조합	광주	경기도 광주군 오폐면 매산리 210	0347-766-1408	300,000개/일
	안성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송두리 727	0333-654-0284	300,000개/일
	동두천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756	0351-858-4300	300,000개/일
	포천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4-1	0357-544-3162	300,000개/일
	용인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2542	0335-333-5352	480,000개/일
대전·충남조합	천안	충남 천안군 목천면 신계리 366-3	0417-557-9711	600,000개/일
대구·경북조합	대구	경북 달성군 다사면 세천리 50-1	053-585-0252	400,000개/일
	영주	경북 영주시 상망동 25-1	0572-636-1109	280,000개/일
	김천	경북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1167-1	0547-432-7401	240,000개/일
전주·전북조합	완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계리 산139-9	0652-221-8111	400,000개/일
광주·전남조합	무안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373-4	0631-281-2191	500,000개/일
	나주	전남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 100-5	0613-433-4110	450,000개/일

그후 채란계는 육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90년대 접어들어서는 난중의 평균이 62g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량별 등급표는 2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특란 60g 이상, 대란 54g~59g, 중란 47g~53g, 소란 42g~46g, 경란 41g 이하가 조정이 되지 않

2. 집하장 운영 실태와 문제점

대구경북양계축협을 비롯한 서울경기양계축협 등 5개 양계 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집하장은 12개소에 달하고 있다(표2 참조).

이들 집하장들은 대부분 개소한지 약 10여년이 경과되어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운영상의 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완벽한 채란업계의 기동 노릇을 할 만큼 기량 면에서 앞서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가. 계란 출하시 할인 폭 확대

계란이 중량에 따라 선별되어 등급별로 유통이 된다는 것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공급의 세분화 원칙이 이미 1974년 2월 6일에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

고 장기간의 세월을 그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함께 노계환우를 통한 계란생산을 부추겨 계란의 품질에 차이가 많아져 상인들이 계란출하시 농장에서 할인(다운)을 일삼는 계기가 되어 계란유통은 체계가 무질서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또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와 판매방식의 변화로 인한 물류비용이나 포장 비용 등 추가로 간접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농가의 소득은 낮아지는 반면, 유통업자들은 오히려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과도한 납품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농가에 전가시켜 이삼중 시세를 형성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아, 거래 관계가 비교적 정확한 집하장의 경우 그 손실은 이루어질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 수가 있다.

나. 계란가격 결정의 불합리

계란을 생산할 때 엄연히 생산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계란을 농가가 출하할 때나 집하장에서 매장에 납품을 할 때에는 계란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거래에 임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다.

현행 생산자들이 농장 출하 가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지역별로 제시가를 정해 놓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할인 폭이 커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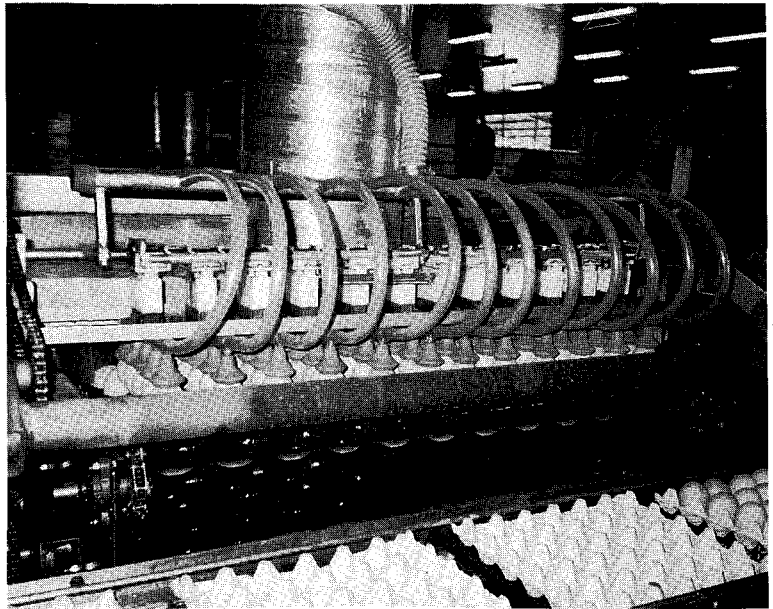
이 차제에 등급기준 중량의 합리적 개선과 품질 등을 고려하여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난가 결정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부가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생산체제가 미흡

계란도 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가 계속 인정되는 유통의 합리화가 관건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거래 기준도 불분명하고 가격산정에도 합리성이 없다면 생산비 보장이 어려워져 부가가치 인정이란 늘 그림의 떡과 같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된다면 자금이나 기술을 투입하고도 이윤추구가 어려워져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소비창출이 시도되지 못하여 채란업은 자칫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라. 다단계 유통으로 상품성 저하

계란의 생명은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두가지 모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의 복잡성 때문에 산지에서 생산된 계란이 상인의 손을 거치는 동안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기간은 정해진 원칙이 없기 때문에 알수가 없게 되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일본은 수입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일 생산된 계란을 매장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식탁에 제공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 채란인들도 태국산 등 수입계란의 국내 반입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통기간을 적어도 5일 이내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다.

신선도 저하는 계란의 안전성마저 위협하여

유통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입계란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3. 개선 방안

계란 집하장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앞에서 4가지 사항으로 지적해 보았다. 할인(D.C)폭 증가, 가격 결정의 불합리, 부가가치 배제, 유통단계 비합리를 꼽았는데 이 같은 항목은 생산자들이 모여 운영하는 집하장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다면 집하장 운영의 발전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할인 폭이 커지고 있어 2~3중 시세로 채란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생산규모가 커진데 반해 시장조절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에 집하장을 추가로 확대 설치하여 유통 비중을 30% 이상 높여 나간다면 수급조절 기능이 발생하여 농가마다 상인을 상대로 출하하는 데에서 오는 불합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란 가격은 생산비를 기준으로하여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재고를 분석하여 등급별로 품질 차별화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이 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가가치를 높인 만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권리 보호나 상품성에 따른 차등제를 실시하여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 신선도 유지와 안전성 확

보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체제 구축에 모든 채란양계인들이 참여해야 발전의 틀이 마련됨과 동시에 집하장의 발전도 획기적으로 도모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4. 맺는 말

세계화 시대, 2000년대를 맞이하여 양계인들은 우선 경영합리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로 생산량을 조절한 결과 1998년과 1999년 상반기까지 양계산물은 생산비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 수입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엿보이는 업종으로 불릴 정도였으나, 지난 해 하반기부터 가격안정에 고무되어 입추를 증가시킨 결과 과잉생산으로 출하가격이 생산비선 이하가 유지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전 채란양계인들이 10% 입추감산, 노계환우 금지의 조치를 취하는데 동참하려는 정신재무장이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대구경북양계축협의 경우, 계란가격안정화에 이바지 하고자 노계육가공공장을 운영하여 난가 하락시 채란농가들이 노계를 적기에 도태하도록 유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의 경우 140톤의 노계정육을 일본 시장으로 수출까지 하는 개가를 올렸던 점을 채란업계는 거듭 상기하여 금일에 도래된 채란양계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양계**